

미래설계를 위한

# 행복 knowhow

07

MONTHLY MAGAZINE  
JULY 2017 VOL.31





###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여름은 우리 몸을 뒹아매던 밧줄이 느슨해지는 계절.  
느긋하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여름 푸른 바다를 상상해보자.  
한낮의 뜨거운 해변, 모래사장에 흩어진 조개껍질,  
푸른 바다에 펼쳐진 청량한 여름 색은  
때론 그대로 멈추고 싶은 추억으로 다가온다.



살이 똥글글 말갛  
진짜 여름이 울긋말갛

# contents



06

## 행복+Money

### 인포그래픽 04

시·도별 장래 고령인구 변화

### 연금포커스 06

새로운 연금상품의 트렌드를 형성해 가고 있는 TDF와 RIF

### 지식프라자 10

2017년 하반기  
조세정책 방향과 절세전략

## 행복+People

### 전문가의 행복코칭 14

나이들수록 긍정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 행복PEOPLE 18

지긋한 청춘을 위한 의미있는 도전



20



22

## 행복+Experience

### 함께하는 기쁨 22

즐거움과 의미 찾는 봉사로 2라운드

### 배움의 공간 26

어른들의 문화놀이터

32



## 행복+Happiness

### 놓치기 쉬운 건강 정보 30

'나잇살?' 림프순환으로 슬슬 풀어라

### TRAVEL 32

세계의 아름다운 정원

44



## 행복+Money+

### 행복메신저 36

'가족의 마음'으로 손님 마음 두드린다

### H씨의 행복설계 38

은퇴 후 안정된 싱글족으로 살기 위해  
금융자산의 적절한 운용과 헬스테크에 신경써야

### 상품소개 42

인출식 연금펀드

### 경제이슈 44

하반기 국내외 경제의 방향은?

### 부동산 이슈 48

초과이익 환수제, 시장 수급여건 악화 영향으로  
재건축 상승동력 약화 가능성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행복 knowhow 2017년 07월호 vol.31 (통권 31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라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별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행일 2017년 06월 30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_박지홍 연구원, KEB하나은행\_최호재 팀장, 흥두산 차장, 하나금융투자\_이정철 부장, 하나생명\_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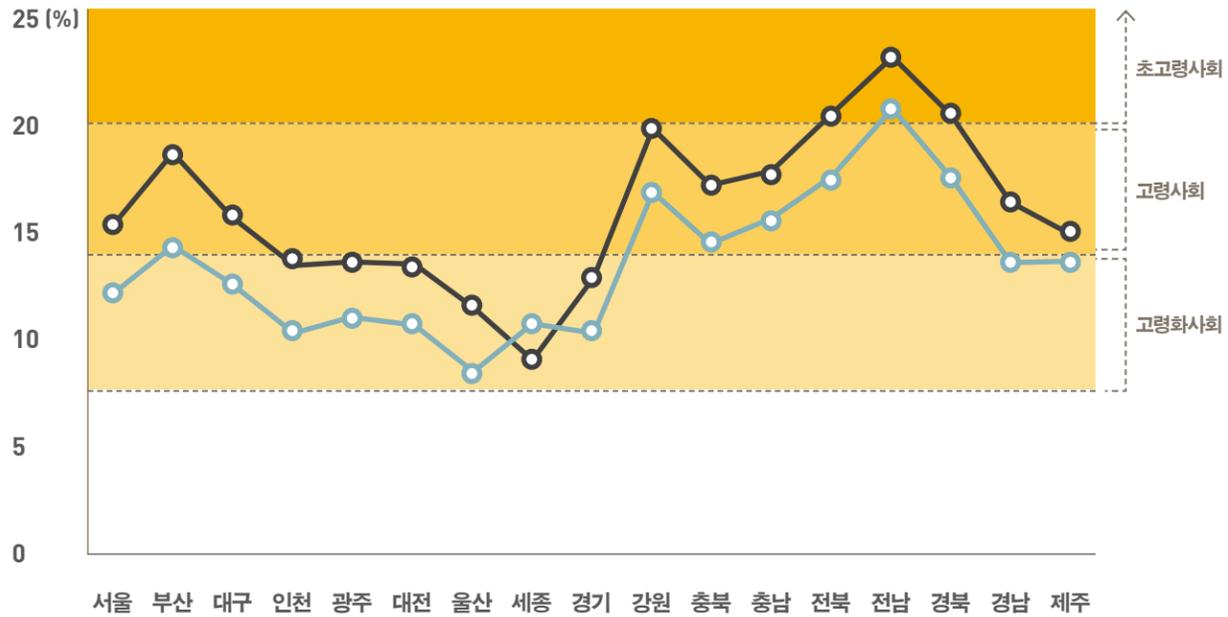
# 시·도별 장래 고령인구 변화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15~2065)에 따르면 서울, 부산,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

## 01 고령인구비중

주 : 65세이상 인구비중  
자료 : 장래인구추계(2015~2065) : 시도별, 통계청

2015년 2020년



## 02 노년 부양비

주 :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 | 자료 : 장래인구추계(2015~2065) : 시도별, 통계청

2015년 2025년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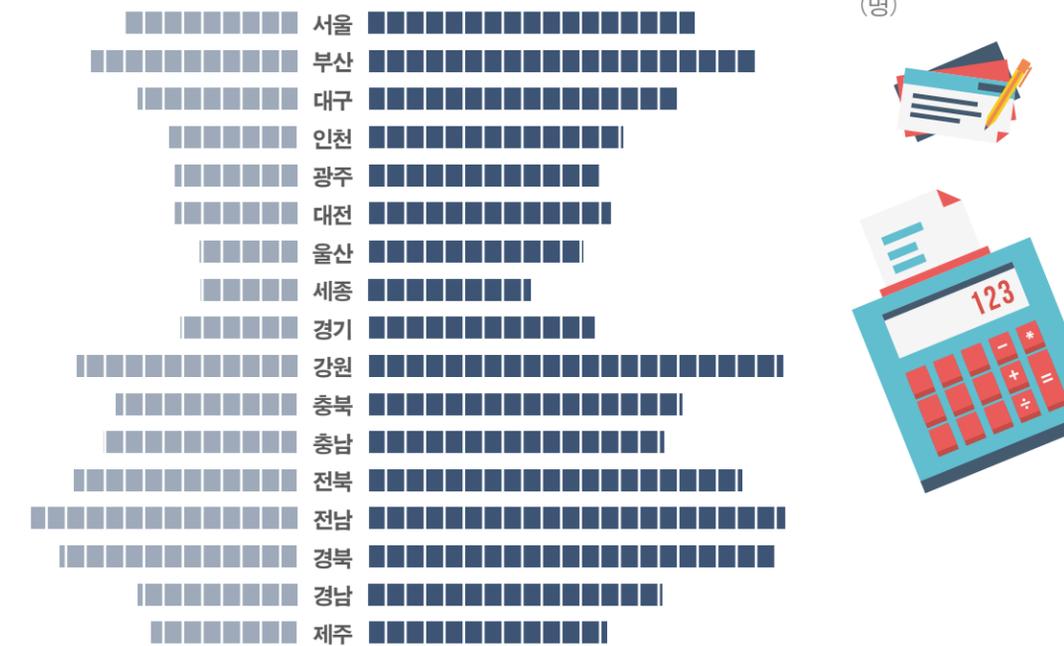


## 03 노령화지수

주 :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 | 자료 : 장래인구추계(2015~2065) : 시도별, 통계청

2015년 2025년

300 250 200 150 100 50 0 0 50 100 150 200 250 300 (명)



# 새로운 연금상품의 트렌드를 형성해 가고 있는 TDF와 RIF



최근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연금펀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타깃데이트펀드(TDF)와 인출식연금펀드(RIF)에 대해

살펴보고, 투자시 고려할 점을 알아보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은퇴자산 증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3층 구조의 연금체계에서 국민연금은 차치하더라도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노후준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실제 퇴직연금은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하여 지난해 말 15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증가했다. 그러나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면서 연간수익률이 2015년 2.15%, 2016년 1.58%로 점점 낮아지는 등 수익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또한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연금저축펀드의 규모도 지난해 말 10조원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3.3% 수준으로 은퇴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퇴직연금 수익률 현황

연간수익률				
(%)	전체	DB	DC/기업형IRP	개인형IRP
2015	2.15	2.11	2.38	1.76
2016	1.58	1.68	1.45	1.09
장기수익률(연환산수익률)				
(%)	전체	DB	DC/기업형IRP	개인형IRP
5년	2.83	2.77	3.06	2.64
8년	3.68	3.55	4.04	3.68

자료 : 금융감독원

## TDF는 생애주기에 따른

### 목표전환형 펀드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용 전략을 바꿔주는 펀드이다. 고객이 은퇴시점을 알려주면 그 때에 맞춰 운용사가 계획을 세우고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성장주와 고수익 채권 등에 공격적인 운용을 하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배당주와 국공채 등 안전자산을 늘려 보수적으로 운용전략을 바꾸는 방식이다. **TDF는 투자자마다 은퇴시기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노후자금을 금융기관이 알아서 관리해 준다는 측면에서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스스로 투자 상품을 관리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은퇴자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투자자가 직접 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TDF라는 하나의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TDF가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단기적 하락에도 리스크 관리가 수월한 면도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TDF가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TDF를 선택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1990년대에 처음 출시된 이후 2006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 퇴직연금시장에서 TDF 수탁고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이후 비교적 빠른 수탁고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TDF를 운용하려는 자산운용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첫 상품이 출시된 이후 5월말 기준으로 TDF 전체 수탁고는 2,200억원을 돌파하였다. 이들 운용사들의 최근 1년간 TDF 수익률은 10% 안팎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국내 TDF 상품은 은퇴시점에 따라 5년 단위의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목표 은퇴시기에 해당하는 펀드를 가입하면 된다. 펀드명에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등 목표은퇴시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은 태어난 연도에 60을 더하여 가입대상펀드를 확인할 수 있다. 투자대상은 운용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제휴하여 이들 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분산투자하는 형태가 많으나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제휴하지 않고 자체 역량으로 펀드를 운용하

는 곳도 있다.

DC형 퇴직연금인 경우 회사에서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상품라인업에 TDF가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개인 연금의 경우 연금을 가입한 금융사에 TDF로 펀드 교체를 요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TDF를 통해 전문가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RIF는 일정 이상의 원금 보장 가능성이 높은 월지급식 펀드**

TDF의 인기에 힘입어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월지급식 펀드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정기적 수입을 제공하는 월지급식 펀드들이 판매되기는 하였으나 수익성과의 변동성으로 인해 대부분 잔존 자산 보장이 어려운 단점으로 인해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RIF는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투자 규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 이상의 금액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목돈으로 형성된 노후자금을 투자하여 장기간 인출이 가능하고 일정 이상의 잔존자산을 보장하여 기대 수명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유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예금이 원금보존이 명확한 반면 저금리와 물가상승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 연금보험이 정기적으로 현금소득을 얻을

수 있으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어려우며 잔존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RIF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

RIF도 TDF와 마찬가지로 미국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으로 2008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RIF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규모는 약 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금보장형에 치우치지 않고 펀드 운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특히 최근 저금리로 인해 채권과 보험 상품의 매력도 감소하면서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부머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RIF 상품은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며 과거 수익률 및 변동성, 시장전망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환헤징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한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RIF 핵심고객은 은퇴고객이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IRP 계좌에서 일시에 수령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부분 저금리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IRP 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IRP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노후자산의 증식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RIF는 목돈 형태의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면서도 일정 기간 후 일정 이상의 원금을 보장할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에 따르면 최근 당사가 출시한 RIF 상품은 투자규모에 따라 2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25년 후에도 은퇴 잔존자산이 50%가 남을 확률이 99%라고 있다. 이와 같은 RIF 상품을 출시하려는 국내 자산운용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 현황**

	TDF	RIF
<b>특징</b>	- 생애주기에 따른 목표전환형 펀드 - 젊었을 때는 공격적인 운용에서 은퇴시기에 근접하면 보수적인 운용으로 전환	- 일정 이상의 원금 보장 가능성이 높은 월지급식 펀드
<b>장점</b>	-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인 노후관리 증식 - 은퇴시점에 따른 상품선택 가능 - 글로벌 분산투자에 따른 수익성과 안정성 동시에 도모	- 전문가에 의한 은퇴자산 관리 가능 - 은퇴자산의 효과적인 운용 - 비교적 높은 일정 이상의 원금보존과 유동성 확보 가능
<b>단점</b>	- 장기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 존재 - 국내의 경우 아직 상품이 다양하지 못함 - 재간접 상품이 다수이어서 수수료 측면에서 다소 불리	- 장기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 존재 - 아직 기존의 월지급식 펀드와의 차별성 검증되지 않음 - 국내에서는 출시 초기단계로서 현재 상품 다양성 부족

자료 : 주요 언론기사 정리

*국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기존의 주 수입원이었던 주식형 공모펀드의 환매가 지속되는 분위기에서 연금 상품을 장기적인 새로운 주 수입원으로 판단하고 양질의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 투자 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에 유의**

TDF의 경우 국내외에서 모두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RIF도 이제 막 국내에 도입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일종의 펀드상품이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최종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두 상품이 해외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거둔 배경이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자산 가격 상승시기였으며 아직까지 시장 급락 상황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TDF가 목표전환형 펀드의 투자기간을 생애전체로 확대한 것이며 RIF 역시 월지급식펀드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운영하는 상품이 대부분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제휴상품으로 이들 자산운용사 펀드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재간접 형태라는 점은 수수료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들이 노후자산을 개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은 노후자산의 수익률 제고라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임에 틀림없다.** 특히 미국시장에서의 성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은퇴여유자금을 TDF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나 노후자산을 목돈 형태로 RIF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장기상품이 점차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들 상품들이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후자산의 안정성을 고려한 상품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상품마다 연령 변화에 따른 주식과 채권비중의 변화, 국내 자산 투자비중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판매 창구에서 여러 상품들을 비교해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기존 주 수입원이었던 주식형 공모펀드의 환매가 지속되는 분위기에서 연금 상품을 장기적인 새로운 주 수입원으로 판단하고 양질의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2017년 하반기 조세정책 방향과 절세전략



지난 2017년 5월, 조기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에 따른 조세정책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라 살림살이는 점점 더 커지는 상황 하에서 적자재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세수입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178조원(연평균 35.6조원)씩을 추가로 조달할 것을 발표했다. 우선, 재정지출 절감 등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연간 22.4조원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이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은 세입개혁 안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6.3조원을,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을 통해 5.9조원 등 13.2조원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럼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세법 방향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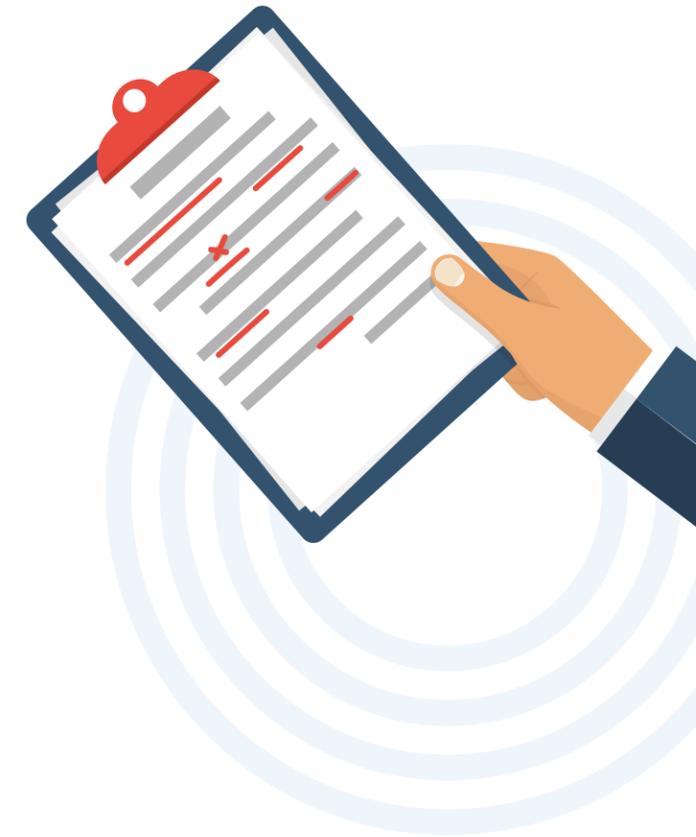
### 소득세 개정세법 방향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학창시절 국영수 주요 과목처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의 약 75% 내외의 중요한 세수이다. 그렇기에 3대 세금의 정비를 통한 증세방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며, 이번 정부 역시 세입 개혁 중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간접세) 중심으로 세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방안

소득세율은 지난 2016년에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상향 조정 되었다. 또한 2017년 개정세법에서는 38%에서 40%까지 최고세율이 추가로 상승되었다. 향후 개정세법 내용으로는 1안으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최고세율 42% 적용방안이 나왔으며, 2안으로는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상향하는 안이 나온 상황이다.

2016년	2017년 현재	개정세법(1안)
과세표준 1.5억원 초과시 소득세율 38% 적용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소득세율 40%적용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소득세율 42% 적용(안)
과세표준 10억원 이면 3억 6,060만원 세금발생	과세표준 10억원 이면 3억 7,060만원 세금발생	과세표준 10억원 이면 3억 8,860만원 세금발생



### Effect & Plan

이번 세율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첫째,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샐러리맨의 급여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양도소득세율 역시, 소득세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해서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고스란히 세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없는 샐러리맨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연금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공제상품과 공제소비를 적극 활용해서, 세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장기간 보유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부동산이라면 직접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 증여를 통해서 세대간 이전을 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점검하고 거래를 해야 할 것이며, 주택 비과세 등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 본 이후에 매각을 해야 할 것이다.

##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방안

현행 세법은 부부기준이 아닌 개인기준으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받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일반 금융소득과 해외금융소득을 포함하여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16 국제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인당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는 약 1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인하될 경우, 약 37만 명 가량으로 신고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Effect & Plan

현재까지는 타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발생할 경우, 약 7,300만원(공제없음으로 가정)까지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었다. 쉽게 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7,3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가 되어도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될 경우, 약 6,300만원 가량까지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절세플랜을 담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중국시장의 회복으로 ELS 금융상품의 수익 달성이 많았다. 이를 감안해 본다면, 내년의 금융소득 신고자는 크게 증가할 것이고 종합과세 기준금액까지 인하된다면 더욱 더 세금 추가납부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 투자방안으로 해외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 장기 비과세 보험상품 등 절세플랜 상품은 필수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 (3)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방안

현행 세법 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비과세이지만,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가 적용되며, 비상장 주식은 주주 크기에 관계 없이 주식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요건을 장기적으로 강화하여 주식 양도세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정부 역시, 주식 양도세율을 현행 20%(중소기업 10%)세율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25%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여부	2017년 4월1일부터 지분율(금액) 기준	2018년 4월1일부터 지분율(금액) 기준	2020년 4월1일부터 지분율(금액) 기준
코스피 법인	1%(25억원)	1%(15억원)	1%(10억원)
코스닥 법인	2%(20억원)	2%(15억원)	2%(10억원)
비상장 법인	4%(25억원)	4%(15억원)	4%(10억원)

### Effect & Plan

법인의 지배주주는 경영권 방어 등을 감안한다면, 양도세 절세차원으로 주식비중을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시기별로 강화되기 때문에 특정회사의 주식이 연도별로 대주주 요건에 넘어가는지를 잘 검토하고 투자하는 것이 세후 투자수익율을 끌어 올리는 전략이 될 것이다.

## (4) 다주택자 임대수입 비과세 효과 중단 방안

현행 소득세법은 부부기준으로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을 보유한 자는 월세로 받는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며, 2주택부터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2018년 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 받게 된다. 새로운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수입 비과세 규정은 2018년부터 1년 앞당겨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 02

##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개정세법 방향

### (1) 법인세율 세부담 증가 방안

2015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세수입 217.9조원 중 소득세 60.7조, 법인세 45조, 부가가치세 54.4조원으로 약 73.3%를 차지하며, 법인세는 20.6%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전체 세수입 242.6조원 중 소득세 68.5조, 법인세 52.1조, 부가가치세 61.8조원으로 약 75.1%를 차지하며, 법인세는 21.4%를 차지했다. 새로운 정부는 연도별 세수입 중 소득세(약 28% 부담)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안) 등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러움이 앞설 것이다. 대안으로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높이는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 (2)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는 전체 세수입 중 차지 비율이 약 6%이하로서, 세부담 확대보다는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명분이 앞선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증여 및 상속분부터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었다. 지난 2016년까지는 신고할 증여세(상속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주던 것을 금년 분부터 7%로 인하하였다. 향후 개정세법안은 신고세액공제를 신고할 증여세(상속세)액의 3~5% 수준으로 더 낮추거나 폐지를 검토 중이다.

2016년말까지 상속(증여)분	2017년 현재	개정(안)
산출세액의 10%공제	산출세액의 7%공제	산출세액의 3~5%공제

### Effect & Plan

과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결국, 부동산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를 감안해 본다면, 정부입장은 장기적 측면에서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줄이고 싶은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절세효과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하듯 상속을 서둘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상속을 대비한 증여플랜은 조금 더 서둘러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모두가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상담 속에 사전증여플랜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재산평가상의 이익도 얻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03

## Closing



새로운 정부의 증세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을 준비하는 현 시대에 탈세를 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정부는 슈퍼리치, 고소득자, 법인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증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탈루세금 과세강화라는 명목 하에 세무조사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결국, 세무조사의 핵심은 자금출처 마련이고, 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을 막기 위해서도 사전증여가 필요가 된다. 결국,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사전증여를 잘 하느냐가 관건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knowhow

### 세무일정 체크리스트

- 7월 부가가치세 상반기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주택(1/2), 건물분 재산세 납부기한(1)
- 8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9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기한, 주택(1/2),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2)
-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전문가의 행복코칭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 나이를수록 긍정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기 위해 사는 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즐거움과 의미가 공존하는 포괄적 감정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쾌락, 소유 또는 성취를 행복으로 착각한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즐거움과 의미를 함께 찾아야 한다.

행복을 향해 가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진정한 행복을 지향하며 내 안의 강점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약점에 예민하고, 그것을 고치려 무던히 애를 쓴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행복해 지려면 강점에 주목해야 한다.

남의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은 대범해지려고 애를 쓰며 산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오히려 대범해지려는 노력 때문에 더 눈치를 보게 되고,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은 내팽개쳐 두기 쉽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안의 강점에 주목하자.

긍정의 지혜를 발휘하자. 불행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의 차이는 긍정의 지혜이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지혜 말이다.

자신 안의 강점을 성장시키고, 결핍을 채우되 과하게 넘치지 않

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을 찾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해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미 한 걸음 더 행복에 다가서는 것이다. 매 순간 100% 행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우리 앞에 나타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혹여 불행의 늪에 빠지더라도 쉽게 극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년에는 항구에 정박한 배처럼 느긋한 삶을 누리야 한다. 먼 나라를 향해하며 힘차게 살던 시절도 아름답지만, 항구에 정박하여 여유를 즐기고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도 결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 시기에 진정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철학자처럼 느긋하게 나이 드는 법'에서 미국의 철학자 대니얼 클라인은 "나이가 들면 성공과 실패보다는 과정이 더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과정을 즐기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김진세  
고려제일정신건강의학과 박사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해졌으면 하고 바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참 어렵다.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전문가 김진세 고려제일정신건강의학과 박사의 조언을 들어보자.



## 행복을 위한 긍정처방전



### 불공평한 삶에서 행복해지는 법

어떻게 하면 비교와 질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차라리 받아들이자. 비교하고 질투하고 초라해지고 불쾌해지는 나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기분이 잠시 나쁘다고 불행해지지 않는다. 잠시 그럴 뿐이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다면 발전이 없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면 일단 받아들이고 후 '과연 비교의 대상은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을까'를 분석하자.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강점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 균형 잡힌 바퀴는 쓰러지지 않는다

생각이 많으면 잔소리꾼이 될 수밖에 없고, 행동이 지나치면 극단주의로 보일 수 있다.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바퀴로 열심히 달리다 보면, 비록 느리기는 해도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 균형이 반드시 동일 시간, 장소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변수로 한 균형으로 30~40대까지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다면, 50~60대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 또한 균형이다.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명확한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 불행에 대한 집착부터 놓아라

나이들면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 부와 명예, 권력이 아니라 즐거운 추억이다. 제주 올레길을 개척한 서명숙 이사장은 "사는 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일몰을 보았는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행복한 추억은 삶을 따뜻하게 한다. 그렇다면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잊을까. 방법은 잊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별의 상처를 씻으려면 감명 깊게 보았던 책이나 영화를 다시 보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허브티에 집중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낙방의 고통을 잊으려면 신체를 활력 있게 만드는 운동을 해보자. 차원이 다른 즐거움에 집중하면, 오히려 아픈 추억은 쉽게 잊게 된다. 평소에 자신이 즐겨워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즐거운지 생각해 두면 좋다.

### 열정과 열정사이, 휴식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우선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신바람이 나기 때문이다. 신바람이 열정에 불을 지피 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에 들떠 몰입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다. 정열과 정열 사이의 휴식도 중요하다. 늘 뜨겁기보다는 가끔은 열을 식혀 줘야 더 행복해진다.

### 불안해서 다행이다

불안한가. 그렇다면 우선 자신의 강점을 찾고 최선을 다해 그 강점을 강화시켜 나가라. 동시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자. 사람들과 당신의 불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지금 그 고통스러운 불안마저도 즐겨라. 불안의 긴 터널을 지나 안정과 자유, 행복을 누릴 그날을 위해 지금 당신의 불안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불안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뿐이다.

### 열린 사고가 긍정을 만든다

열린 사고는 긍정적인 삶의 원칙이다. 유연하고, 순수하고, 수용적인 열린 사고는 생존의 우성 인자이다. 적극적으로 사고를 개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을 전혀 다른 경로로 가본다거나, 점심 메뉴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는 등 일상 속의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열린 사고가 작동한다. 오해하지 말자. 열린 사고를 가졌다고 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에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면서 만나는 일들에 대해 좀 더 마음을 열고 관찰하고 접촉하고 느끼라는 뜻이다. 열려 있어야 성공과 행복이 찾아온다.

참고도서 : 행복을 인터뷰하다(김진세, 샘터) / 길은 모두에게 다른 말을 건다(김진세, 이봄)

## 나이 들수록 행복가능성 높아진다



###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의 행복 기준이 다른가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행복학자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의 정의는 '즐거움과 의미가 공존하는 포괄적인 경험'입니다. 이 정의를 따르면 행복의 기준이 나이에 따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즐겁고, 어떤 것이 의미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젊었을 때는 성취와 도전이 즐거움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는 융화와 여유가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또 젊었을 때 자아실현이 큰 의미라면, 나이 들어서는 주변과의 소통과 긍정적인 영향력이 큰 의미일 수 있고요.

### 시니어들을 만나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나이 들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흔히 나이들어 행복해지려면 건강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나이들수록 보다 행복해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쉽게 병들고, 힘도 빠지고, 노동력이 떨어져 젊은이들보다 불행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 현명해지고, 집착과 욕심도 줄고, 행복감수성이 좋아집니다.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또,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의 생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존 후에 행복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도, 굶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 종교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해요. 종교를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나이들어 가장 힘든 문제는 아마도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상담을 오시는 노인 분 중에는 "이렇게 늙도록 살아서 뭐해. 빨리 가버려야지!"라고 하시면서 벌써 10년째 상담 받는 분도 있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우울증이 심한 상태나 정말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존재의 소멸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셈이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나이 들수록 소속되는 조직 또는 사회가 줄어들어, 여러 가지 종교적 모임이 그 대안이 되지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인관계입니다. 오죽하면 행복학을 대인관계학이라고 부르겠어요. 종교를 갖는다고 정말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인간관계가 늘어나니 행복할 확률은 높아진답니다.

### 시니어들에게 추천하는 행복 습관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가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큰 행복도 작고 소소하지만 늘 함께하는 행복을 이길 수 없지요. 미래의 큰 행복을 위해 현재를 소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식사와 수면 습관을 지속하고, 운동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빨리 걷기)을 매일 하는 것이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는 것도 건강에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나의 행복이 남과 같지 않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찾아낸 즐거움과 의미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지긋한 청춘을 위한 의미있는 도전

정광필 50+인생학교 학장

혁신학교 전도사가 평생교육 길잡이로 나섰다.  
대안학교인 이우학교를 세우고 8년 간 교장을 지낸 정광필 씨가  
50+인생학교 학장으로 새로운 도전을 감행한 것이다.  
“50+들의 엄청난 에너지가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정 계획, 교양 쌓기 수준에 머물던  
기존의 시니어 교육을 뛰어넘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50+중부캠퍼스에서  
그를 만났다.

‘50+인생학교’ 정광필 학장은 교장선생님 출신이다. 2003년 설립한 도심형 대안학교로 잘 알려진 ‘이우학교’에서 초대·2대 교장을 맡아 개교 초기 기틀을 닦았다. 이우학교는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그와 100여 명의 뜻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혁신학교다. 혁신학교, 대안학교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그의 도전은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그가 이번엔 50+다. 지난해부터 50+인생학교를 열고 새로운 시도가 한창이다. 정 학장이 중·장년의 교육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방영된 SBS 다큐멘터리 ‘바람의 학교’에 출연하면서 인생학교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40~50대 관계자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엇인가?’, ‘피할 수 없는 진실에 어떻게 대면하나?’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요. 생각해보면 이 세대는 제대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살면서도 못했던 것이 현실이죠. 조직이나 가정에서의 역할, 생존에 몰두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때 인생학교에 관한 구상을 떠올렸습니다.”

## 정광필 씨





지긋한 청춘들의  
불타는 열정

지긋한 청춘. 50+세대를 지칭하는 그의 언어다. 50+세대의 열정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한다.

“지금의 50대는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큰 기여를 했죠. 상당한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정치적으로는 세상을 바꿔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은퇴자, 노인으로 내모는 건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죠. 50+인생학교 수강생들만 봐도 엄청난 에너지를 느낍니다. 문제 해결 능력, 추진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경험이라는 자산을 제대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니어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젊은이와 다르지 않다. 정 학장이 현장에서 시니어들을 만나며 느끼는 열정의 온도는 뜨겁기만 하다. 지긋한 청춘들이 그동안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감추고 살아왔는지 궁금할 정도란다.

“1박2일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 시간을 그렇게 누워 별만 바라봤죠. 고독력 키우기 훈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후 평소 말이 없던 한 수강생은 낭만적인 시를

읊조리기 시작하더군요.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마음에 꼭꼭 눌러 담은 온갖 이야기들을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견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ですよ. 이들의 마음 깊이 숨겨진 에너지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나이’에서 오는 중압감,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니 각자 안에 담겨진 가능성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정 학장이 50+인생학교를 연 이유이기도 했다.



세대갈등 해결에

50+에너지 활용해야

이들이 가진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세대통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의미를 되짚었다. “은퇴하고 나면 등산이나 운동으로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TV 앞에 머무는 것이 보통의 일상이죠. 준비 없이 맞은 은퇴 이후의 삶이란 대개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일로요.” 그러려면 무엇이든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40대 후반, 50대에 은퇴를 해도 앞으로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하는 것이 지금 은퇴 세대입니다.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재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기획은 많아요. 이렇게 미리 배워 놓아야 은퇴 뒤 부담을 덜 수 있고 그 사이 새로운 관계망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야

‘행복’ 보인다

50+인생학교는 50+세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강의 중심인 보통의 재교육과 다르다. 50+인생학교 과정의 핵심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어딜 가나 훌륭한 사람의 강연은 많아요. 그런 내용을 들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를 뛰어넘어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인생학교에서는 3개월간 주 1회(4시간)씩 모두 10회의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기간 중 강의는 단 두 번뿐이다. 대신 수강생이 직접 머리와 몸을 쓰는 워크숍 중심이다. 수업 주제는 ‘영화로 자신의 삶 탐색하기’, ‘예술놀이를 자기표현과 관계 확장’,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커뮤니티 만들기’ 등이 있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강생들이 개별 커뮤니티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활동한다. 1기 수강생들은 각종 네트워크를 연결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가치은행 커뮤니티’, ‘뇌 운동 활성화 커뮤니티’ 등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력의 문제에 관심이 높습니다.  
 결국은 모델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혁신적인 시니어 교육 모델이 필요합니다.  
 50+인생학교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학교에서 얻어야 할 건 작지만 의미 있는, 조금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든든한 동료로 만나고, 그들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좋죠.”

이러한 결실은 삶의 행복과도 연결된다. 그는 행복의 조건으로 가족과 친구 등 관계,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삶을 돈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돈이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 친구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정 학장의 목표는 50+인생학교가 좋은 시니어 교육모델로 자리 잡는 것이다. 50+인생학교를 넘어 20+, 30+, 40+로 교육프로그램을 이어갈 비전도 갖고 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력의 문제에 관심이 높습니다. 결국은 모델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혁신적인 시니어 교육 모델이 필요합니다. 50+인생학교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 함께하는 기쁨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사진 출처 : 우리마포시니어클럽



# 즐거움과 의미 찾는 봉사로 2라운드

가치있는 일을 해보고자 뜻을 세우지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 보자. 특히 사회공헌 일자리는 봉사도 하고, 작지만 보수도 얻을 수 있어 보람은 두 배. 인생 2막의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찾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법.

봉사, 사회공헌은 은퇴자들의 주된 관심사. 특히 사회공헌 일자리는 금전적 보상은 적지만 자기만족과 성취감에 큰 비중을 두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여서 관심이 더 높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자원봉사, 봉사도 하고 수익도 얻는 사회공헌 일자리로 인생 2막의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찾아보자. 지역 시니어클럽부터 자원봉사포털사이트까지 여러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형태도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 삶의 의미,  
일상의 활력  
찾았죠 ”



현장을 가다-우리마포시니어클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카페. 올해 65세 정수혁 씨는 바리스타로 활동한 지 벌써 5년째다. 교직에서 정년퇴임 후 평소 좋아하던 커피와 좀 더 친해보고자 바리스타에 도전했다. 우리마포시니어클럽을 통해 주2일 하루 5시간 씩 일한다. 급여는 30만원.

“단순한 사회활동을 넘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자 자부심입니다. 이 일을 하다보면 내가 60대라는 걸 잠시 잊게 되요. 활력 넘치는 일상과 의미있는 삶을 얻었죠.” 사회공헌 일자리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우리마포시니어클럽은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 가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이다. 실버도슨트, 노노헬스케어 등 공익활동과 리워쿠기, 우리왕만두, 젠틀맨택배, 손끝공예 등 시장형 사업 등 모두 15개 사업을 포함해 590명의 시니어들이 일을 하고 있다. 마포구 외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을 찾아가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면 사회공헌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 두배의 보람, 사회공헌 일자리

###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50+와 비영리단체를 연결하는 이곳의 문을 두드려볼 것. 수확 교사로 퇴직한 50+에게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학 강사가 될 기회를, 행정공무원 출신 50+에게는 시민단체 행정 지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 멘토링, 사회 서비스, 경영 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 노무 등 다양한 직무에 지원이 가능하다.

[www.seniormanse.org](http://www.seniormanse.org) | 02-6369-8987

### ● 서울시 보람일자리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서비스가 바로 서울시 보람일자리다. 경로당 코디네이터, 학교안전관리 서포터, 스마트영상작가 등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자격은 서북50플러스캠퍼스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도전할 수 있다.

[50plus.seoul.go.kr](http://50plus.seoul.go.kr) (→일자리→보람일자리) | 070-7712-6960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시니어인턴십 등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 정보제공 뿐 아니라 관련 각종 교육도 병행하고 있어 활용할만 하다. 특히 시니어사회활동포털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www.100senuri.go.kr](http://www.100senuri.go.kr) | 1588-1697

### ● 우리마포시니어클럽

마포구내 박물관 안내 및 전시물 해설 활동을 지원하는 시니어도슨트, 마포구 내 장애인시설에 파견되어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우리보듬이, 생활체육지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어르신이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노노헬스케어, 마포구 내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수업, 야외활동, 교사업무 보조 등의 활동하는 사업인 해피메이커, 유용미생물(EM)원액을 제조하여 공중화장실 등 오염지역에 살포하는 EM드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지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맵핑 등을 운영한다. 단 마포구 거주지만 가능하다.

[www.maposeniiorclub.org/index.php](http://www.maposeniiorclub.org/index.php) | 02-336-4499



## 함께 행복해지는 법, 자원봉사

### ● 서울시NPO지원센터

시니어는 물론 시민의 사회공익 활동과 비영리단체(NPO)의 성장을 지원하는 곳이다.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미트쉐어(meetshare.kr), 비영리단체를 위한 각종 자문 및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www.seoulnpocenter.kr](http://www.seoulnpocenter.kr) | 02-734-1109

###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곳으로 모아진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서울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봉사 전문 플랫폼을 추구하는 기관. 센터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단체와 유형별 자원봉사 활동을 검색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volunteer.seoul.go.kr](http://volunteer.seoul.go.kr) | 1670-1365

### ● 한국자원봉사문화

개인과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자원봉사는 물론 사회공헌 일자리 정보도 얻을 수 있다.

[www.volunteeringculture.or.kr](http://www.volunteeringculture.or.kr) | 02-415-6575

### ● 1365자원봉사포털

전국의 자원봉사 활동 정보를 모아놓은 포털이다. 지역별, 분야별 자원봉사 수요처를 검색하고 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봉사뿐 아니라 국가자격, 민간자격, 실무경력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한 재능나눔형 자원봉사 활동 수요처도 별도로 검색할 수 있어 유용하다. [www.1365.go.kr](http://www.1365.go.kr) | 1522-3658

## 나도 한다! 해외봉사

젊은 층이 대부분이던

해외봉사 현장에 중장년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전의 전문직, 기술직에

치우쳤던 해외봉사활동이

문화, 건축, 교육 등의 분야로

다양화되면서 문턱이

낮아졌다. 전문 기술이

없더라도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해외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 ● 프로젝트 어브로드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다. 주로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에서 사회복지, 환경보호, 집짓기, 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기간, 참여 프로그램을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www.projects-abroad.kr](http://www.projects-abroad.kr) | 02-337-5725

### ● 코피온(COPION)

세계 각국의 NGO와 비영리기관에 국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단체이다. 3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교육, 아동 및 가족, 직업훈련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www.copion.or.kr](http://www.copion.or.kr) | 02-733-1387~9

### ● 월드 프렌즈 코리아

NIPA자문단

해외파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가진 민간 또는 공공 기관 출신의 퇴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퇴직자, 퇴직 예정자를 모집해 일정 교육을 거친 뒤 1년 동안 활동한다.

[www.worldfriendskorea.or.kr](http://www.worldfriendskorea.or.kr) | 02-2132-1511

KOICA 해외봉사단

만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해외 봉사단, 교육, 직업교육, 농수산업, 농촌 개발 분야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kov.koica.go.kr](http://kov.koica.go.kr) | 1588-0434

“ 지난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

이육기 월드프렌즈 KOICA 볼리비아 자문관



Q. 현재 볼리비아에서 KOICA 자문관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볼리비아 수출진흥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주로 볼리비아 상품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조사활동집을 발간하고, 현지 중소기업 컨설팅, 해외시장과 무역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사, 기아자동차 해외사무소 등 그동안의 경험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세계시장에 수출과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은 현지 볼리비아 기관원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하는데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Q. 현지인과 원활히 소통하고, 지식을 전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는데 외국 언어를 뒤편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그 나라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소득이죠. 언어소통은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Q. 퇴직 후 해외봉사활동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퇴직 후 우연히 해외봉사활동 정보를 접하고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봉사는 인생을 다시금 정리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숨가쁘게 인생을 살아왔던 지난 시절을 보상받는 즐거운 시간이지요. 많은 퇴직자들이 삶의 가치를 봉사활동에서 찾으면 좋겠어요. 해외봉사활동은 세계의 고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전달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배움의 공간

글. 장정현 기자  
amyach@naver.com

# 어른들의 문화놀이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는 문화생활이 빠질 수 없다.

느긋하게 예술을 즐기기도 하고, 만들고 두드리며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기도 한다.

때론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며 설레임 가득한 일을 도모하는 곳.

삶의 활력을 더하는 서울 지역의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를 소개한다.

## 서울50플러스



아트와 원예가 만나는 아트&가드너, 마을정원사, 시간을 담은 사진작가, 영상매커이버, 합창, 연극교실, 내 손으로 쓴 자서전 등 서울50플러스재단에서 진행하는 캠퍼스에는 다양한 문화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 원예, 목공 등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중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과정이 눈길을 끈다.

- 01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2214-5050 | 50plus.or.kr/scc
- 02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84(녹번동5번지)  
서울혁신파크 8동  
02-372-5050 | 50plus.or.kr/swc
- 03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56-193번지  
(2017년 하반기 개관)

## 자치구50플러스센터



자치구50플러스센터는 각 자치구에서 진행한다. 사회공헌이모작문화학교(도심권), 우리동네복합문화사업(동작), 50플러스문화교실(영등포), 노원50+센터 등 센터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50+세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 교양 강연이 마련되어 있다.

- 01 **도심50플러스센터**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  
02-3672-5060 | www.dosimsenior.or.kr
- 02 **동작50플러스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02-3482-5060 | www.dongjak.50center.or.kr
- 03 **영등포50플러스센터**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  
02-2635-5060 | ydp.50center.or.kr
- 04 **노원50플러스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0길 73  
02-930-5060 | nowon.50cente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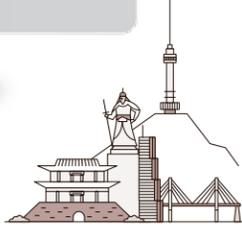
#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알아두면 유용한 문화공간

서울의 다양한 문화정보가 궁금하다고? 여기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험들이 가득한 유용한 문화공간을 소개한다.

01

## 스토리인서울

여행은 중년들의 삶을 풍요롭게 책임지는 빠질 수 없는 취미생활. 여행에 대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서울의 여름녹음길 200선', '2016 서울의 보통사람', '서울 해맞이 명소 19선'과 같이 특정 주제 아래 제작된 서울시 문화, 관광, 생활 관련 기획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스토리인서울이다. [seoul.go.kr/storyinseoul](http://seoul.go.kr/storyinseoul)



03

## 페스티벌인서울

봄을 알리는 벚꽃축제에서 시작해 뜨거운 여름을 식히는 한강 몽땅 여름축제, 가을밤을 수놓는 빛 초롱 축제, 겨울을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축제에 이르기까지 거대도시 서울에는 사계절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다. 서울 곳곳의 축제를 한꺼번에 검색해볼 수 있는 곳, 페스티벌인서울이다. [festival.seoul.go.kr](http://festival.seoul.go.kr)



02

## 서울문화포털

전시회, 콘서트, 축제, 문화·교양 강좌 등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문화행사 정보가 궁금하다면? 서울문화포털을 활용하자.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숨어있는 서울시 곳곳의 문화 공간을 검색할 수 있다. [culture.seoul.go.kr](http://culture.seoul.go.kr)



04

## 서울박물관·미술관

서울에는 200여 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존재한다. 지도 검색 서비스로 내가 사는 지역, 오늘 방문할 지역에 어떤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지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gomuseum.seoul.go.kr](http://gomuseum.seoul.go.kr)



05



## 서울의 산과 공원

서울시 푸른 도시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이다.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교육, 체험 행사와 강의실,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 공원 내 시설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자원봉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공원 검색 서비스와 서울시 생태 정보도 제공한다. [parks.seoul.go.kr](http://parks.seoul.go.kr)

06



##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서울 4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테마 야시장이 열린다. 여의도(월드나이트마켓, 매주 금·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청춘런어웨이&댄스나이트, 매주 금·토), 목동운동장(레포츠&익스트림, 매주 금·토) 청계광장(시즈마켓, 5·7·9·10월)에서 먹을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낭만적인 밤을 보낼 수 있다. [www.bamdokkaebi.org](http://www.bamdokkaebi.org)

07

## 시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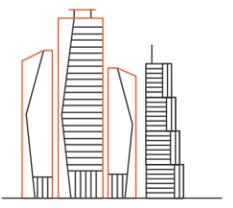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쉽 없이 벌어진다.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1, 2층에 있다. 강연, 전시, 공연, 회의, 체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원하는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한다. 서울시의 간행물을 구입할 수 있는 서울책방, 공정 무역 상품을 모아 파는 지구마을도 시민청에 있다. [seoulcitizenshall.kr](http://seoulcitizenshall.kr)



08

## 비지트서울

서울을 일과 생활의 터전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한 번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비지트서울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다. 테마별 즐길 거리에서 추천 여행코스, 쇼핑, 맛집, 숙박 정보, 다양한 주제의 가이드북까지. 꼭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많다. [korean.visitseoul.net](http://korean.visitseoul.net)





나이를 먹으면 생긴다는 일명 '나잇살'.

과연 누구에게나 나잇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일까?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찐다' '웬만해서는 뺏살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체형이 달라졌다' '저녁이 되면 손발이 붓는 게 느껴진다'...

30대 후반 김명희 씨(가명)는 오후만 돼도 손발이 붓는 것 같아, 오래 걸으면 신발자국이 그대로 남았다. 예전에는 조금만 덜 먹어도 뺏살이 들어갔지만, 요즘에는 몸이 붓는 느낌이 나면서 저녁을 굶어도 뺏살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주위 친구들에게 이런 증상

을 얘기했더니 '나잇살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과연 나잇살 때문일까. 강현영 유스클리닉 원장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서 흔히 말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가장 큰 원인은 림프 순환 장애"라고 밝힌다. 흔히 나잇살이라고 불리는 팔, 등, 복부 엉덩이, 허벅지 등 원하지 않는 부위의 사이즈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이유가 림프순환 장애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

# Interview

## '림프순환'으로 체질을 바꿔라



강현영 유스클리닉 원장

Q 어떤 분들에게 림프순환 장애에 따른 비만의 문제가 나타날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 70% 이상이 스스로 하체비만으로 고민한다고 한다. 림프 순환 장애로 인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비만이 허벅지를 중심으로 한 승마살, 엉밑살, 허벅지 셀룰라이트, 종아리 알, 종아리 부종 등이다. 정제된 밀가루, 당류, 기준치 이상의 염분 섭취 등 식습관뿐 아니라, 다리를 꼬는 습관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 누적되어 나타난다.

Q 치료 방법으로 추천할 만한 것은. 몸 구석구석 림프절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림프절 마사지는 림프절의 순환이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지방이 뭉치고 두꺼워지는 증상, 부종, 몸저림 등을 해결하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빠른 변화를 원한다면 유스키니 시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하다. 유스키니 시술은 림프순환 장애를 개선하고 부종과 염증에 따른 셀룰라이트와 불필요한 근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Q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은.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부종이 자주 발생하는 분은 염분이 많은 음식은 삼가는 게 좋다. 유스키니와 같은 고주파 시술 후에는 지방 배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2리터 이상 자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레이저 시술 단계에서 가벼운 온열감 정도를 느낄 수 있지만 통증이나 멍 등은 거의 없다.

Q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림프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부종이 개선되고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활동량에도 살이 빨리 빠지는 바디 컨디션으로 바뀌게 된다. 특정 부위의 정체된 림프 순환계를 원활하게 하면, 불필요한 부위의 사이즈를 줄이고 균형있는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

### FOR FACE

#### 귀밑샘 림프절

얼굴 림프의 출구로 불리우며, 귀 밑부분에 있다. 주름을 퍼주는 역할을 한다.

#### 목 림프절

림프가 지나가는 길로 목덜미에 있다. 팔자주름에 효과적이다.



— 마리오네트라인  
--- 2중턱

### FOR BODY

#### 쇄골 림프절

쇄골 위 무목한 부분으로 3회 문질러주는 것이 좋다.

#### 겨드랑이 림프절

겨드랑이 아래 부분에 있다. 림프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 복부 림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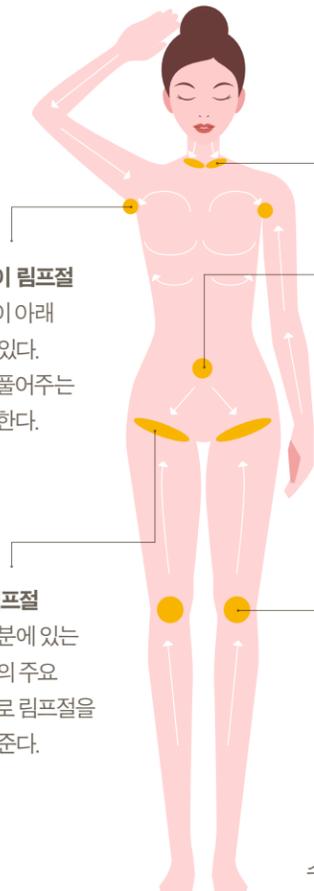
배꼽 주변 부분에 있는 림프절, 복부비만에 효과적이다.

#### 서혜 림프절

대퇴부에 있는 하반신의 주요 포인트로 림프절을 자극해준다.

#### 오금 림프절

무릎 뒤편에 있어, <제2의 심장> 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림프절로 수시로 주물러준다.





# World Garden

## 세계의 아름다운 정원



정원의 매력은 소통이다. 자연과 교감하며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정원은 한편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 있는 나무와 꽃이 주는 생명력과 싱그러움은 행복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당대의 걸작으로 꼽히는 세계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떠나보자.

은퇴자를 위한 추천 해외 여행지

### 빌라 정원의 극치 이탈리아 빌라 데스테

정원을 공부하거나 정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탈리아의 빌라 데스테(Villa d'Este) 정원이다. 이탈리아 티볼리에 자리한 이 정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빌라 데스테의 시작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어진 분수와 동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가장 오래되고 경이로운 정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원의 아름다움을 벗 삼아 천천히 걸어보자. 500여 개의 분수에서 울려 퍼지는 시원한 물의 향연과 푸르다 못해 검푸르기까지 한 총림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해준다. 빌라 데스테는 에스테 가문의 추기경 이폴리토 데스테(Cardinale Ippolito d'Este, 1509~1572년)에 의해 1550년에 초안이 만들어진 뒤 건축가 피로 리고리오(Pirro Ligorio, 1510~1583년)가 설계하여 지은 별장이다. 언덕에 위치한 빌라 데스테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빌라 데스테를 둘러본 후 언덕 아래에 있는 아드리아나도 둘러보자. 티볼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웅장한 정원이 한 곳에 인접해 있다는 것은 여행자들에게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비밀스러운 통로들이 많아 복잡하지만 흥미롭다. 수로에서 물이 나오는 구멍은 재미있는 동물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는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빌라 데스테에서 바라보는 노을도 놓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보르 비콩트 성은 매년 3월 중순에 문을 열어 11월 초순에 닫는다. 늦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정원에는 40분짜리 산책로와 1시간 30분짜리 산책로 두 개가 있다.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전기 골프차를 대여해 다닐 수 있다.

### 유럽식 정원의 모델이 되다 프랑스 보르 비콩트 성

프랑스 고대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보르 비콩트 성은 기하학적 정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르 비콩트 성의 원래 주인은 루이 14세 때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재무상 니콜라 푸케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은 성이 바로 보르 비콩트 성이다. 당시 루이 드 보(Louis Le Vau, 1612~1670)가 전체적인 설계를 맡았고, 내부는 당대 유명 화가이자 예술가였던 샤를 르 브룅(Charles Le Brun, 1619~1690)에 의해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졌다. 특히 기하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정원은 프랑스 정원의 창시자로 불리는 앙드레 르 노트르(Andre Le Notre, 1613~1700)에 의해 탄생하게 된다.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55km 떨어진 센 에 마른(Seine et Marne) 데파르트망의 망시(Maincy)에 위치한 보르 비콩트 성은, 베르사유 궁전의 연습용 축소판으로도 불린다. 루이 4세가 보르 비콩트 성을 만들었던 니콜라 푸케를 감옥에 넣고 재산까지 몰수한 후 성을 만든 세 사람을 불러 더 멋지고 화려한 성을 짓게 만드는데, 그 성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인 것이다. 주인 니콜라 푸케가 멜링(Melun)과 보(Vaux)의 자작(Vicomte)이란 칭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르 비콩트 성(Chateau de Vaux le Vicomte)'으로 불렸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광대한 식물원 캐나다 부차드 가든

다른 정원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곳이다. 캐나다 밴쿠버 섬에 있는 부차드 가든은 1904년 제니 부차트가 남편의 시멘트 사업으로 채굴되었던 옛 석회암 채석장을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엄청난 볼거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다. 부차드 가든은 5~6월이 가장 아름다운데 원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장미를 한 곳에 모은 장미정원은 부차드 가든의 자랑이다. 일본 정원, 이탈리아 정원 등 세계 각국의 특색을 표현한 정원도 볼거리다. 정원의 규모가 제법 커 모두 돌아보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많은데 벤치에 앉아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답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수 있으며 강아지들을 위한 물도 곳곳에 비치되어 있다.



정원 안에는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총 백만 그루가 넘는 나무와 꽃들이 있다. 정원마다 특색을 살피며 산책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입구에 기프트샵은 정원과 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하다.



### 천국의 정원으로 불리는 스페인 헤네랄리페

스페인 헤네랄리페 궁전은 가히 여름 별장으로 불릴 만하다. 헤네랄리페는 나스르오아조의 무하마드 3세 제위(1302-1309)시 여름 별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나스라왕조는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 이슬람 왕조였다.

그라나다에서 알람브라 궁전으로 오르는 오솔길을 따라가면 궁전의 동쪽 높은 언덕에 그라나다 왕들의 피서를 위한 은둔처로서 헤네랄리페(Generalife) 궁전이 있다.

정원을 올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곳은 헤네랄리페의 핵심 장소인 '수로의 파티오(Patio de la Acequia)'다. 왼쪽으로 펼쳐진 통로로 알람브라와 그라나다를 전망할 수 있다. 새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이 궁전은 사방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 경치가 아름답고 시원해 여름 휴양지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하늘 향해 높이 솟은 사이프러스 나무 사이로 미로처럼 꾸며진 수벽을 따라가다 보면 청량감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원의 가장 안쪽에 아세키아 중정은 헤네랄리페의 하이라이트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펼쳐지는 크고 작은 분수는 아름답뿐만 아니라 정교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 하나의 거대한 분재처럼 꾸며진 홍콩 난리안 가든

하늘 높이 솟은 마천루와 고즈넉한 정원.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풍경이 홍콩에 있다.

난리안 가든은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다이아몬드 힐 지역에 거짓말처럼 조용히 자리해 있다. 당나라 양식으로 지어진 이곳은 중국의 규모 있는 정원에 비하면 소박하지만 섬세한 건축 기술로 볼거리가 가득하다. 1만 여평 규모에 꽃과 나무가 아기자기하게 조성되어 있고, 언덕, 바위, 식물, 목재 구조물 하나하나가 마치 계산된 듯 그 자리에 배치되어 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이면 난리안 가든의 아름다움은 극에 달하는데, 마치 회색빛 도시 속에 있는 거대한 분재처럼 보인다. 정원 곳곳의 기괴한 바위를 감상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난리안 가든은 산책하기 좋은 곳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햇빛이 강렬한 낮에는 태양을 피할 곳이 별로 없어 땀을 좀 흘려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바로 옆에 위치한 '차린 수도원'은 홍콩의 명소로 이곳 역시 꼭 둘러볼 만하다.



## ‘가족의 마음’으로 손님 마음 두드린다



이현옥  
KEB하나은행 고대지점 과장

따뜻한 서비스로 손님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KEB하나은행 고대지점 이현옥 과장의 하루는 분주하다. 손님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챙겨드리느라 늘 시간이 부족한 탓이다. 가족 같은 마음이기애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다는 그녀의 진심은 손님 마음 두드리기에 충분했다.

2005년 입행 이후 경력을 쌓아온 이현옥 과장은 현재 고대지점의 VIP손님의 자산관리를 책임지는 은퇴자산관리 전문가다. 손님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품을 권유하고, 니즈를 꼼꼼히 체크해 만족시키는 서비스 베테랑이기도 하다. 덕분에 손님의 은퇴준비를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평이다. 그녀의 차별화된 서비스 중심에는 ‘체계적인 자산관리 철학’이 녹아있다. “체계적인 자산관리로 손님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서비스 전략”이라고 인터뷰 내내 강조하는 그녀다. “노후 준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의 연금펀드로의 계약이전은 손님의 금리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수익 창출을 위한 최적의 제도”라며, “2016년부터 적극적으로 손님들에게 권유하고 있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수익 창출은 물론 손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대하는 진실한 금융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EPISODE

지난해 지점 대기인원수가 30~40명에 달할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교직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업무 중 방문한 상태라 오랜 시간 대기가 어려워 VIP상담실에 업무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흔쾌히 업무를 처리하며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입출금 통장에 남아있는 많은 잔액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금계획을 여쭙본 후 상품에 관심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 관리가 힘든 상태라는 얘기를 듣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연금과 보장성보험을 친절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감 후 내점하셔서 상품에 직접 가입하셨고, 서비스에 만족하신 손님께서 동료직원 5분을 소개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니다.

### 노후준비를 위한 TIP

- 1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관리 목표 세우자.**  
단기적으로는 결혼자금, 중기적으로는 주택자금, 장기적으로는 자녀교육비 및 노후준비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생애 자산관리 목표에 맞춰 동시에 저축하면 남들보다 일찍 노후 준비가 이뤄지는 것이다.
- 2 은퇴자금 상품에 가입하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세테크가 중요하다. 직장인 및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인 세액공제 상품(보험, 펀드)으로 절세혜택을 받고, 그 외 자금은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을 이용하여 높은 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받고 복리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 3 은퇴 후 제 2의 직장을 구하자.**  
100세 시대이다.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년 전에 미리 자신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은퇴 후에 직장생활은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 개인형 IRP 가입자격 확대

받자, 누리자,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누구나 OK!

가입자격 확대일, 2017년 7월 26일

자영업자, 직역연금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모든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포함)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 | 최대 1,155,000원 까지 절세

\* 총급여 5,500만원이하 또는 총합소득 4천만원이하, 세액공제한도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조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구하의 다른 예금보조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백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EB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 주세요. (KEB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pension.kebhana.com)  
\* 본 홍보물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권역별 상담 센터 ☎ 36520179-21000811001-100

# 은퇴 후 안정된 싱글족으로 살기 위해 금융자산의 적절한 운용과 헬스테크에 신경써야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H씨(만 38세)는 화려한 싱글족이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중이다.

다행히 H씨는 상당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독신으로 살 계획이며,

노후 준비 외에 남은 자금은 자신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과연 H씨는 현재 불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 만으로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

**싱글족으로 살고 싶은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지 고민**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H씨(만 38세)는 화려한 싱글족으로 살고 있다. 가정을 꾸리는 것 보다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중이다. H씨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별도로 보유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반전세(4.3억원)를 놓고 있다. 또한 3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자산으로는 펀드 1,850만원, 연금저축펀드 7,100만원, ISA 1,000만원, 예/적금 1,500만원, 주택청약 145만원이 있다. 부채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4.3억원이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수입으로는 근로소득 월 430만원과 반전세 수입 25만원이 있으며, 지출은 생활비 240만원, 보험 20만원, 예/적금 75만원, 연금저축펀드 90만원, 적립식펀드 20만원, 주택청약 10만원이 있다. 이 외에 매년 해외 여행 등 취미생활에 1,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H씨는 향후에도 독신으로 살 계획이며, 노후 준비 외에 남은 자금은 자신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여행 등 취미생활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불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 만으로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수입으로는 근로소득 월 430만원과 반전세 수입 25만원이 있으며, 지출은 생활비 240만원, 보험 20만원, 예/적금 75만원, 연금저축펀드 90만원, 적립식펀드 20만원, 주택청약 10만원이 있다. 이 외에 매년 해외 여행 등 취미생활에 1,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H씨는 향후에도 독신으로 살 계획이며, 노후 준비 외에 남은 자금은 자신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여행 등 취미생활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불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 만으로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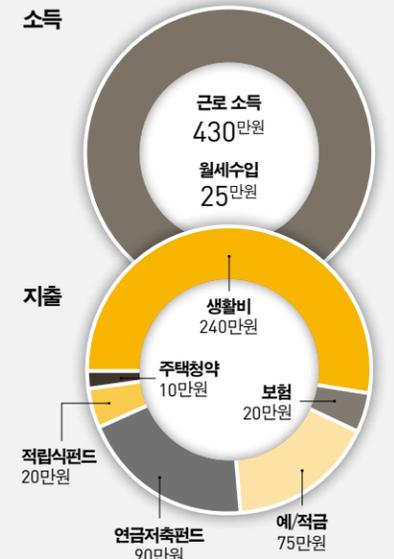
**금융자산의 활용을 통해 은퇴 후 자금 부족분을 해결할 필요** H씨는 55세 정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H씨는 생활비로 월 24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는 취미생활 외에도 싱글로서 풍족한 생활을 위해 월 35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흐름 파악을 위해 미래 수입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만 65세부터는 월 143만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은퇴 직후인 만 55세부터 20년간 월 102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로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도 만 55세부터 20년간 월 174만원을 수령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sup>1)</sup>을 살펴보자. 은퇴 전인 54세까지 현금 흐름을 보면 정기적인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지만 매년 1,500만원 규모의 여행비용 발생을 감안하면 총수입과 지출은 거의 균형에 가깝다. 은퇴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인 만 65세까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만을 수급하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다소 큰 규모의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65세 이후부터 74세까지 3층 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구간에도 여행 비용 만큼의 자금 부족 현상은 지속되며, 국민연금만을 수령하는 75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은퇴 이후 자금 부족분에 대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에 축적해 놓은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운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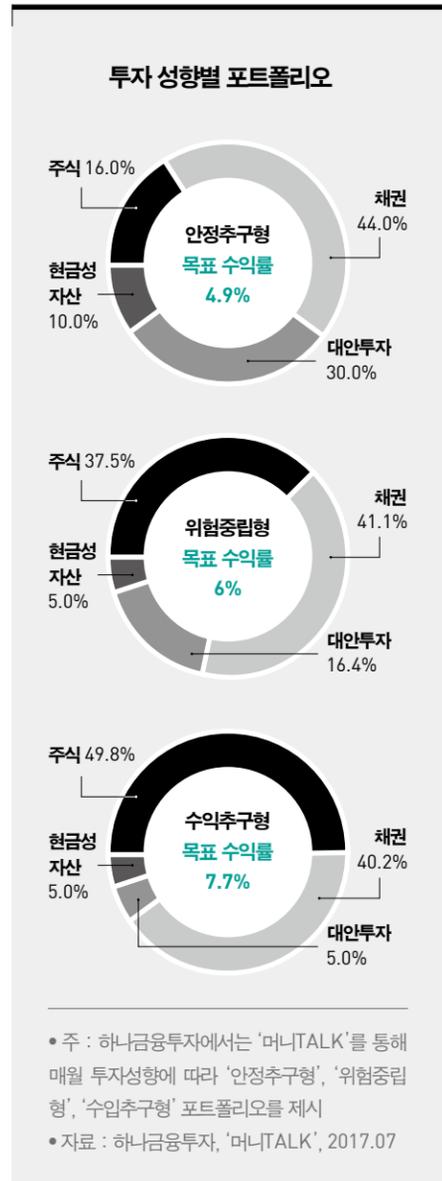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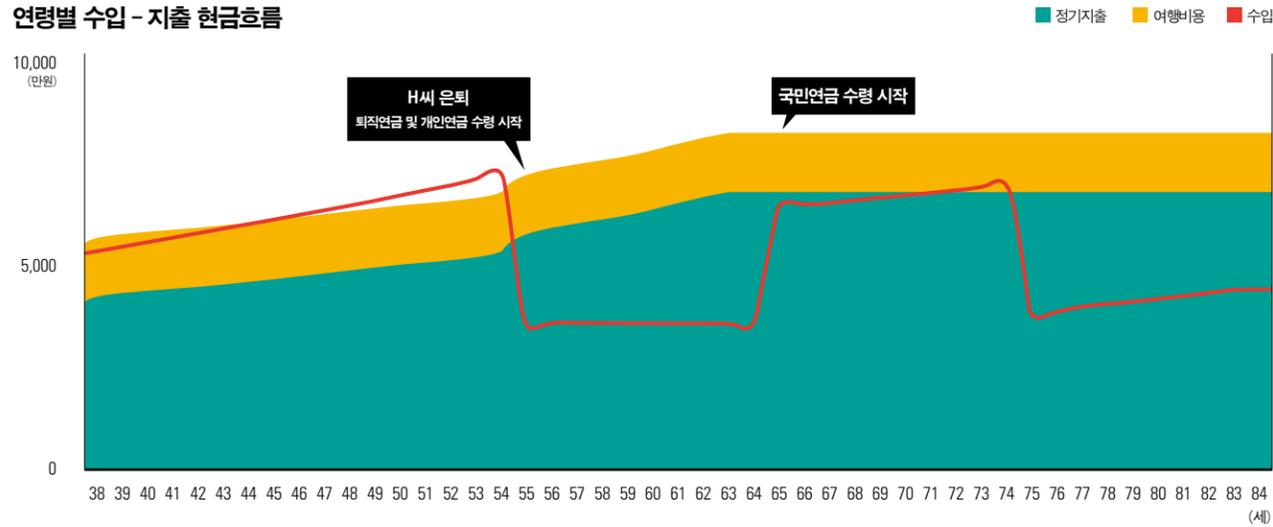
## H씨의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자산	아파트	10억원
	실물자산	3억원
	펀드	1,850만원
	연금저축펀드	7,100만원
	ISA	1,000만원
	예/적금	1,500만원
	주택청약	145만원
부채	전세보증금	4억 3,000만원
	<b>순자산</b>	<b>9억 8,595만원</b>



1) 물가상승률은 2.0%를 가정하고 수입은 소득에 연금 수급액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보험료, 교육비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모됨을 감안하여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을 금융자산화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

H씨가 현재 상황을 유지한 채 만 55세에 은퇴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활용은 필수이다. 독신으로 살더라도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이 높으며, 매년 여행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H씨가 현재 계획대로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퇴 후에 부족자금의 현재가치는 약 7억 5,000만원이 되어야 하며, 이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외에 부동산자산도 활용해야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H씨가 보유한 순자산 규모가 대략 10억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노후 생활에 큰 무리가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H씨의 노후를 설계해보자.

우선 실물자산의 활용을 위해서 이를 금융자산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3억원 규모의 실물자산은 현재 시점에서 금융자산화하여 활용한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고 있는 10억원 규모 아파트의 경우 소득절벽으로 mismatch가 발생하는 시기인 은퇴 직후 55세에 처분하여 금융자산화하는 것을 가정<sup>2)</sup>한다.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를 통해 노후 생활에 활용한다고 하면 금융자산의 필요 수익률은 2.20%가 된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이 4.9%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H씨의 경우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노후에도 많은 지출을 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다만, H씨가 싱글로 계속 살아가고 가정할 경우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고령에 접어들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이다.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족이 없다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자산을 다 소진하기 보다는 유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할 경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지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에 약 3억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 금융자산의 필요 수익률은 2.84%가 된다. 앞선 시나리오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H씨가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3층 연금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원활한 현금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자산을 소진하는 것을 가정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 보다는 일정 금액 이상을 비상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싱글족인 H씨에게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노후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을 확인해보고 보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은퇴 후 싱글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재테크 뿐 아니라 헬스테크에도 신경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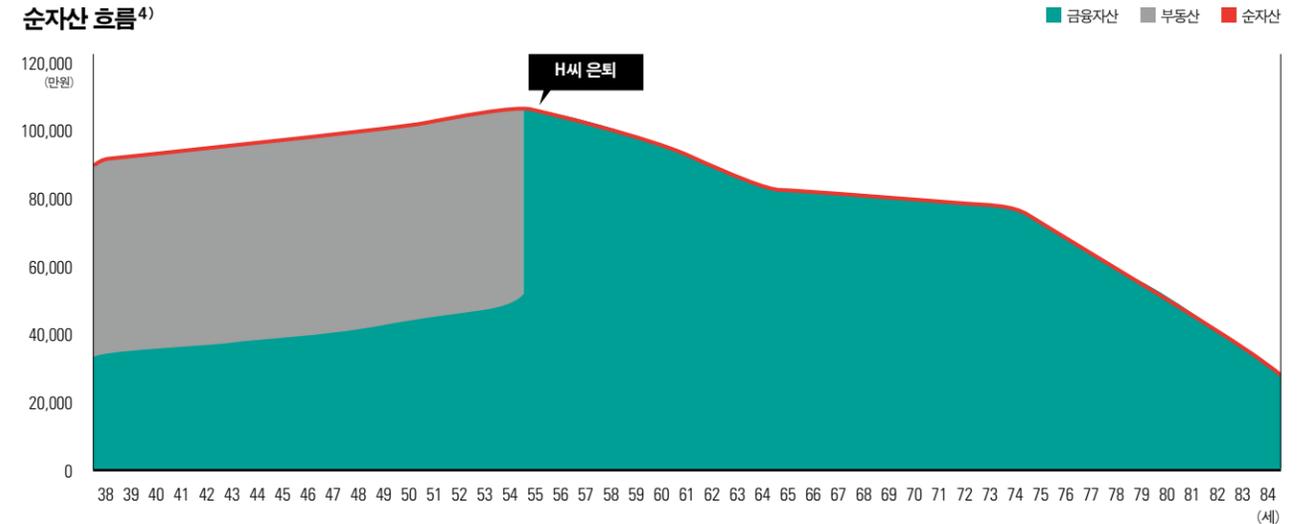
H씨는 그동안 대기업에 재직함과 동시에 싱글로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축적했다.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결혼을 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기 쉬운 측면도 있다. 다만, 노후에도 싱글로 살 경우 보살펴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도 언급했지만 H씨에게 중요한 것은 재테크와 더불어 헬스테크 (Health Tech)<sup>3)</sup>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자금을 모두 소진하기보다는 비상 자금을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 결혼을 포기하고 화려한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결혼부터 자녀 출산 및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포기하는 젊은 층도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싱글족 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인 세계적인 추세임은 분명하다. 싱글로 살아가는 경우 결혼을 한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출에 자유롭고 풍족한 노후 생활을 보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출을 우선으로 하기 전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점검해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무 상황이 안정적이라 생각되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 관리가 될 것이다. knowhow



-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집에서 향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것을 가정
- 3)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를 의미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리키는 신조어
- 4) 3억원을 비상 자금으로 보유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도식화한 것

순자산 흐름<sup>4)</sup>





## 인출식 연금펀드

장기인구추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인구 고령화는 기대수명의 향상,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는 은퇴자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 노후 안정적인 소득흐름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의 경우 그동안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자산의 증식에만 관심을 두었지 축적된 연금자산을 활용한 안정적인 연금소득의 창출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최근 들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 안정적인 연금 소득의 창출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에도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 인출식 연금펀드(RIF : Retirement Income Fund)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출식 연금펀드는 일정수준의 금액을 연금펀드에 투자하면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월 연금소득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일종의 펀드이다. 은퇴자의 입장에서는 운용사가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운용하고, 일정수준의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

라 연금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추종할 수 있도록 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도 방어해 주기 때문에 노후 연금소득관리가 매우 편리한 이점이 있다. 반면 RIF는 위험자산에 운용되기 때문에 원금의 보장이 담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금액도 낮게 지급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요즘 해외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인출식 연금펀드로 managed payout funds, income-replacement funds, target date retirement funds와 같이 크게 3 종류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향후 안정적인 연금소득 마련에 대하여 고민인 투자자라면 최근 국내에서 출시되기 시작하고 있는 인출식 연금펀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단, 인출식 연금펀드의 경우 연금지급률 등 다양한 옵션 선택, 위험자산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등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연금소득 흐름, 위험태도 등의 고려와 더불어 은퇴 및 자산관리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투자해야 한다.

### 인출식 연금펀드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특징	- 펀드가입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월급처럼 매월 일정수준의 연금수령이 가능(Vanguard 지급률 4%) - 유동성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환매를 통해 확보가 가능 - 투자자의 니즈에 따라 원금의 일부 전부에 대해 상속이 가능
투자위험	- 투자자산의 위험자산 운용으로 인하여 투자자산의 원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
투자한도 및 편입자산	- 통상적으로 최저한도 설정(Vanguard의 경우 25,000달러) - 편입자산은 통산 다양한 펀드의 편입을 통해 운용
연금지급	- 지급은 연금펀드 가입자의 편의에 따라 월, 격월, 분기, 반기 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 - 연금지급의 원천은 수익, 원금 등 투자자의 니즈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연금수급자 대상 빅팟카드 출시이벤트



\* 빅팟 연회비  
국내전용 4,000원 / 국내외겸용(VISA) 5,000원

## 연금받고, 버스타고, 월 최대 6천원 할인받고!

- 기간 : 2017. 5. 15 ~ 2017. 7. 31
- 내용 : 연금수급자 대상 빅팟카드로 대중교통 요금 결제 고객 월 최대 6천원 청구할인(이벤트 기간 내 대중교통 첫 이용 후 2년간 제공)

- \* 대중교통 요금 6천원 미만 시 청구금액만 할인
- \*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지하철, 공항철도(시외버스, 고속버스 제외)
- \* 이벤트 대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KEB하나은행으로 수급 받으시는 손님

### ● 연금수급자 대상 빅팟카드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혜택

 <b>국내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b> (5만원 이상 결제 건에 한함) 무이자할부	 <b>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롯데월드 50% 현장할인</b> 본인에 한해 현장할인(월 1회 / 연 4회)
 <b>커피빈 10% 할인</b> (월 4회 / 5천원 한도 내) * 대형마트, 백화점 입점점포 및 상품권 구매 시 할인제외	 <b>영화 최대 4,000원 할인</b>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인터파크 할인 (통합 월 2회 / 8천원 초과 시 4천원, 8천원 이하 시 2천원 할인)
 <b>파리바게트, 아웃백, TGIF 10% 할인</b> (통합 월 2회 / 1만원 한도 내) * 대형마트, 백화점 입점점포 및 상품권 구매 시 할인제외 * 통신사카드와 중복할인 가능 (통신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b>철도승차권(KTX포함) 5% 할인</b> (월 2회 / 1회 1만원 한도 내 할인, 2천원 이상 결제 시 할인) * 철도청 현장 및 코레일 사이트(www.korail.com) * 승차권 판매대리점(여행사, 편의점 등을 통한 결제 시 할인 제외)
 <b>SK주유소 리터당 50원 할인</b> (1일 2회 / 월 6회 / 1회 주유금액 20만원까지)	 <b>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2% 할인</b> SKT, KT, LG U+ 자동이체 시 (월 1회 / 5천원 한도 내)

#### ◆ 서비스 제공조건

- 지난달 일시불/할부 이용금액 20만원 이상 시 제공
- 카드 사용 등록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이용금액 관계없이 제공

\* 교통요금은 신용공여기간 결제일에 따라 발급 월 기준 다음 다음달까지 청구할인 미반영될 수 있으며, 미 반영된 교통요금 할인 분은 소급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소지하실 경우, 회원님의 복수카드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카드사간 공유되어 신용등급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1800-1111)로 문의 바랍니다.  
 \* 상세혜택 및 이용조건은 카드 발급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 또는 하나카드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체이자율(24.0~27.9%)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7-C1g-06784호(2017.05.11~2017.12.31) / 준법심의 17-0658(2017.05.11~2017.12.31) / V1 170524-71

# 하반기 국내외 경제의 방향은?

하반기 국내외 경제는

장밋빛 전망이 가능할까.

우선 세계경제는 대체로

양호한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경제는 상반기와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수출과 투자의

둔화속도가 변수이다.

하반기 국내외 경제의

전개 방향을 전망해본다.



## 세계경제는 양호한 성장 예상되지만 추가 모멘텀은 제한적

2017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소비 및 투자개선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의 수요증가와 원자재 가격 반등 등에 힘입은 신흥국의 수출확대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신흥국 중에서는 세계교역 반등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수출국의 경기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선진국 수요의 경기건인력과 원자재 상승의 지속성이 낮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OPEC의 감산연장과 글로벌 경기회복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비 OPEC의 증산, 감산 장기화에 따른 감산 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美) 신정부 정책부양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는 점과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둔화 및 중국 유동성 조절 등으로 신흥국 성장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하반기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을 제약할 요인이다.

하반기 미국경제는 고용 및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호조로 인한 민간소비 확대와 기업의 생산 및 투자회복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신정부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로 경제지표가 심리 및 금융지표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이 장기화되면서 정책추진력이 약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며,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상반기 투자를 견인한 에너지 부문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유로존 경제는 유로화 약세와 ECB의 양적완화(QE)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이 9%대로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뚜렷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선거에서 중도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반이민, 반EU, 보호무역 등의 포퓰리즘과 테러가 계속되고 영국과 EU탈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유로존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ECB의 국채매입 중단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과 그리스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글로벌 PMI 및 세계경제 성장률

자료 : Bloomberg



“

일본은 '21세기형 인프라 투자' 및 2020 도쿄 올림픽 관련 투자 등으로 공공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회복이 제한적이어서 성장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중국경제는 신중한 통화긴축으로 완만한 둔화가 이어질 전망**

중국경제는 경제전반의 과도한 부채 및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로 정책당국이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함에 따라 유동성 위축이 가시화되고 고정투자 및 부동산경기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글로벌 경기호전으로 인한 수출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소비가 경기하방 압력을 완충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당국의 금융시스템 규제로 은행권의 표면적인 신용위험은 억제될 전망이지만, 당국의 제한을 피해 우회적으로 자산을 확장해 온 중소형금융사의 경우 규제강화에 따른 신용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경제는 세계교역 회복으로 인한 수출증가와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투자 및 고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확대가 실질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소비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인력부족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장시간노동 및 비정규직 비중 확대 등으로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21세기형 인프라 투자' 및 2020 도쿄 올림픽 관련 투자 등으로 공공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회복이 제한적이어서 성장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반기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확산한계로 성장 가속화 쉽지 않아**

하반기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고정투자 호조에 신정부 추경이 가세하면서 상반기와 비슷한 양호한 성장이 예상된다. 설비투자가 수출회복과 실적개선 등으로 IT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축소와 주식시장 강세 등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출 역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수출품에 대한 수급개선 및 가격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조원을 상회하는 추경 역시 약 0.2%p의 성장률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수출가격의 기저효과 둔화와 투자확장의 한계 등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진국 수요의 경기견인력이 약해 수출물량 회복이 크지 못한 점과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세 제한으로 수출가격 상승의 기저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부진,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설비투자 호조세가 여타산업으로 확산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수주 둔화와 SOC 예산감축 기조로 인한 토목투자 부진 등으로 건설투자 호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역시 미지수이다. 민간소비의 경우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소비심리가 개선되었지만 가계부채 확대, 젊은 층의 고용환경 악화 등으로 회복에 한계가 뚜렷한 모습이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경우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의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반



한국 수출증가율 및 WTI 유가 상승률

주: 6월 이후 WTI 유가 배럴당 55달러 가정  
자료: Bloomberg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고 신중한 경영전략과 자금운용이 요구되는 시점**

하반기 국내경제의 성장경로에는 중국 사드갈등 완화, 신정부 재정확대, 선진국 경기회복 가속화 등의 상방 리스크(Upside Potential)와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사회 불안,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내외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회복세의 강도나 지속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뚜렷한 경기회복 신호가 나타나기까지 신중한 경영전략과 자금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초과이익 환수제, 시장 수급여건 악화 영향으로 재건축 상승동력 약화 가능성

재건축이 주택시장의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재건축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지난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말에 지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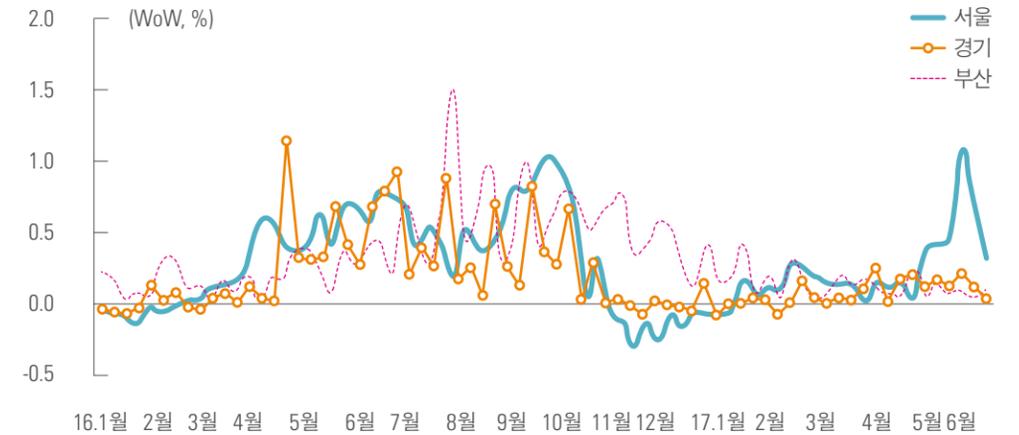


투자처로 재건축 아파트 인기 지속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정비사업, 특히 재건축이 화두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강해지면서, 도시 내부의 재건축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도 조합원 분양이 미리 확보되고 입지가 좋아 사업대상지로 선호하고, 수요자도 가격하락 가능성이 낮은 우량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 재건축 아파트가격 주간상승률

자료: 부동산114



올해 재건축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2016년에 못 미쳐

지난 5월부터 6월 초까지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금등세를 보였다. 6월 첫째 주에는 한 주 동안 1% 넘게 올라 2016년의 주간 최고 상승률을 넘었다. 강남권 4개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승률은 2016년에 못 미치고 있다. 월간 상승률로 보면 올해 5월과 6월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1% 초반과 2% 중반대로 최대 3% 초반에 이르렀던 2016년에 못 미치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 등 다른 지역은 상승세가 더 약하다. 5월 이후 경기도와 부산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주 평균 0.1% 내외 오르는데 그쳤다. 각각 1%를 넘었던 2016년의 최고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하반기 상승동력 약화

올해 말에 지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3,000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이 많은 반포주공1단지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1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인기지역에서는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되었다가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환수제를 다시 유예하지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여부는 불확실하다. 아직까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유예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재건축 시장의 상승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변지역 파급효과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

재건축의 주변 파급효과도 2016년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수급여건이 작년만 못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보다 0.5%p 가량 올랐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급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늘어난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6년 29만호에서 올해 38만호, 내년 43만호로 증가한다. 정부 정책도 규제 강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얼마 전인 6월 19일, 새 정부에서는 청약조정지역을 늘려 전매제한과 주택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 자체로 규제가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반응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 know how

미래설계를 위한

# 행복 knowhow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TEL 02-2002-2200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